

김·전복 수출 역대최대...지난달 광주·전남 11.6억 달러 흑자

전남 농림수산물 수출 8천만 달러 월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자동차 3개월 만에 '+' 전환...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호조

전남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지난달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11.6억달러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관련 수출이 증가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 수출액은 53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46.2억달러)보다 1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전년 같은 달보다 0.3억달러 줄어든 14억

달러, 전남은 7.1억 달러 증가한 39억달러를 해외에 팔아 지었다.
특히 전남에서는 김과 미역 전복 등 수산물의 수출 호조로 농림수산물의 수출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26.8% 증가한 0.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월(月)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K-푸드'의 선두주자 격인 김은 전년보다 38.5% 늘어난 1195만달러의 수출액을 올렸고, 미역은 584만달러(129.9% ↑), 전복 439만달러(8.4% ↑)를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또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선전

이 돋보였다. 석유제품은 베트남과 일본 등지의 수요 증가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 단가가 오르게 수출액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전남에서 석유제품은 12.2억달러 팔렸는데 전년 같은 달보다 36.1% 증가한 수치다.
기타석유화학제품도 1.7억달러(29% ↑), 석유화학제품 역시 20.7% 늘어난 0.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기초유분은 2.6억달러(102.4% ↑), 선박관련 수출은 3.1억달러(148.4% ↑)를 달성했다.
중국과 일본 등 전남의 주요 수출국 10개 모두 전년 같은 달 대비 수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광주는 대표 수출 상품인 자동차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한 6.6억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의 자동차 수출은 올 2월 전년 대비 감소로 전환했다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특히 디젤차량(2500cc이하)이 103.8%, 하이브리드 차량이 42.3%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자동차와는 달리 반도체와 냉장고 수출은 주춤했다. 반도체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7% 감소했다. 반도체는 최대 수요처인 싱가포르로의 수출이 20% 이상 감소한 게 주효했다.
전년 대비 수출액이 0.5% 감소한 냉장고는 호주와 캐나다로의 수출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지자체별 수출 순위에서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울산, 충남, 서울, 인천에 이어 6위를 기록했고 광주는 10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은 수출 1위 지자체인 경기도에 이어 증

가율에서 2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남의 전년 비 수출액 증가율은 22.5%로 경기(42.8%)에 이은 두번째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13.8%보다도 10%p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
아울러 국내 수출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6.9%, 광주는 2.5%였다.
광주·전남 수입액은 41.5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32.6억달러)에 견줘 27.3% 늘었다. 광주의 수입액은 작년 4월(5.3억달러)보다 2% 늘어난 5.4억달러였고, 전남이 전년(27.3억달러) 보다 32.2% 늘어난 36.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1.6억달러 흑자로, 광주(8.6억달러)와 전남(3억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13.6억달러) 보다는 2억달러 적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1030 취향 저격 캐릭터 '텐텐 문방구' 팝업

내달 2일까지...21개 브랜드 참여

광주신세계는 오는 6월2일까지 분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텐텐 문방구' 팝업스토어(사진)를 진행한다. 21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키덜트(Kid+Adult)' 등이 트렌드인 요즘, 10대부터 30대까지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소비하는 시장이 넓어진 데 따라 이번 팝업스토어를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디즈니 캐릭터와 스누피로 유명한 '피너츠', '위너브라더스'의 파워퍼프걸,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쿠로미, 시나모롤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산리오' 등 21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미니어처 소품들과 가차(뽕기 기계) 파우치 체험존,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하며, 특히 인증사진을 SNS에 공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기자기한 디자인 스티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오는 24일까지 평일 한정 스누피 스티디 플래너와 피너치 가로형 스티디 플래너를 1000원에 판매하는 특가 판매 이벤트도 진행된다.
평일 특가 이벤트로 한정상품 50% 할인 혜택과 텐텐문방구 팝업스토어에서 물건을 구매 시 텐바 이븐 온라인 쿠폰을 증정한다.
주말에는 피너츠 장바구니를 3000원 특가에 판



매하며,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분관 지하 1층에서 사용가능한 F&B(식음료) 5000원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셔닝장은 "이번 팝업은 개
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텐텐문방구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일상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군산 소상공인 간담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1일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를 찾아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군산지역 소상공인에게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와 성실신고 지원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늦춰 현실적인 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신설' 등을 건

의했다.
양동구 청장은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혁신하는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건의하신 내용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검토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세청의 세제와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계빚 1년 만에 줄었다...부동산 부진·정책대출 감소 영향

1분기, 작년 4분기보다 2.5조원 ↓

올해 1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2조원 이상 줄었다.
1년 만의 감소로, 높은 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에 대출 수요가 위축된 데다 정책대출 상품 공급과 연초 카드 사용도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작년 4분기(12월 말·1885조4000억원)보다 0.1%(2조5000억원) 줄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2000억원)·3분기(+17조원)·4분기(+7조원) 계속 늘었다가 결국 네 분기 만에 뒤집혔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767조원으로 전 분기 말(1767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76조7000억원)은 12조4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이 작년 4분기(+15조2000억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690조4000억원)은 12조6000억원 줄어 열 분기 연속 감소를 유지했다. 감소 폭도 전 분기(-9조7000억원)보다 컸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위축 배경에 대해 "주택거래량이 작년 말 이후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담보대출) 상품이나 디딤돌·버팀목 등의 정책대출 공급도 전반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며 "경상 기준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은 일반적으로 연말 4분기에 늘어났다가 연초 1분기에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삼성, 1분기 TV 시장 1위

19년 연속 글로벌 1위 눈앞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며 19년 연속 1위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
2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 29.3%, 수량 기준 18.7%로 모두 1위에 올랐다.
매출 기준 2위는 점유율 16.6%를 기록한 LG전자, 수량 기준 2위는 점유율 12.6%의 중국 TCL이다.
삼성전자는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53.2%)과 1500달러 이상 범용 TV 시장(55.2%)에서 모두 매출 기준 1위를 석권했다.
또 초대형 시장인 75형 이상 및 80형 이상 시장에서도 각각 매출 기준 점유율 29.6%, 34.4%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올해를 인공지능(AI) TV 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1분기에 네오(Neo) QLED 등 초대형과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1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2006년 첫 1위



삼성전자 모델이 역대급 성능의 '3세대 AI 8K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4년형 Neo QLED 8K TV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달성 이후 작년까지 18년 연속 1위를 수성했다.
2022년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재출시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TV는 누적 판매 160만대를 돌파했다. 1분기에는 매출 기준 점유율 27.0%로 2위에 올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치킨가격 줄인상...BBQ 황금올리브 3천원 ↑

굽네·푸라닭치킨 이어 인상

배달비 포함 3만원 시대 눈앞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BBQ가 황금올리브치킨 가격을 3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제너시스BBQ는 오는 23일부터 2년 만에 가격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황금올리브치킨은 2만원에서 2만3000원, 황금올리브치킨콤보는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되는데 소비자가 할인을 받지 않고 배달비까지 내면 3만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사이드 메뉴까지 포함한 110개 품목 가운데 치킨 제품 23개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평균 소비자권장 판매가격 인상은 6.3%다.
53개 제품은 동결했으며 31개 제품은 증량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BBQ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매출 기준 4위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가 고추바사삭 등 9개 치킨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인상했으며 푸라닭 치킨도 단품과 세트

매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
치킨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BBQ는 지난 2022년 5월 초에도 원부재료와 물류비, 인건비 급등에 황금올리브치킨 등 제품 가격을 2000원 올린 바 있다.
BBQ는 지속적으로 악화한 가맹점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권장 판매 가격을 조정했다면서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조정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BBQ는 전체 110개 제품 중 절반인 56개 제품 가격은 동결한다. '황금올리브치킨 속산삼' 등 치킨류 30개 제품과 피자·버거 등 사이드 메뉴 전체(26개)가 해당한다.
31개 제품은 증량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를 봤다. '간풍치킨', '극한왕갈비치킨' 등 6종은 가격 변동 없이 닭다리를 1개 추가했다.
25개 제품은 가격이 올랐지만 양도 늘었다. 예를 들어 황금올리브치킨콤보는 가격이 3000원 비싸졌지만, 닭 다리수는 5개로 1개 늘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5월 소비심리 다섯달 만에 '비관적' 전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동향지수(CCSI)는 98.4로 전월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지난 1~4월 내내 100선을 웃돌다가, 이달 들어 100 아래로 내렸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4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생활형편전망(92), 가계수입전망(97), 향후경기전망(79)은 전월 대비 2p씩, 현재생활형편(88), 소비지출전망(109), 현재경기판단(67)은 1p씩 내렸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4.18 (-17.96)
↓ 코스닥	846.51 (-0.57)
↓ 금리(국고채 3년)	3.411 (-0.001)
↑ 환율(USD)	1363.30 (+7.40)